

# 지역고유의 문화정체성 확립해야

## 9월중 경기북부권 문화원장 협의회

경기북부권 문화원장 협의회(협의회장 이만규)는 9월10일 포천시청 시청회의실에서 경기 북부권 문화원장 및 사무국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장인 이만규 포천문화원장은 "지역주민이 동참하여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전통문화를 꾸준히 연구하고 창조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고유의 문화정체성을 확립 해 나가는데 지역문화원이 각 지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남선우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의 격려사와 서정원 포천시장의 축하사언이 이어 행사를 주최한 포천문화원의 문화사업 추진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고 문화사업 추진에 대한 다양한 협의가 있었다.

특히 서정원 포천시장이 참석해 문화사업에 헌신하고 있는 지역문화원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또한 포천시 관내 한과바물관 및 운영서원, 인평대군 차체문비 등 포천 지역의 문화유적을 답사하며 향토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경기북부권 문화원장 협의회는 9월10일 포천시청 시청회의실에서 경기 북부권 문화원장 및 사무국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중협의회를 개최했다.

경기북부문화원장협의회는 경기 북부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2007년도에 발족했으며 회원문화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규) ▶의정부문화원(원장 조수기) ▶양주문화원(원장 박성복) ▶동두천문화원(원장 안민규) ▶연천문화원(원장 임상준) ▶고양문화원(원장 오수길) ▶파주문화원(원장 민태수) ▶가평문화원(원장 조정현) ▶남양주문화원(원장 이창수) ▶구리문화원(원장 김문경)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韓國의 선비정신 · 114

## 우리에게 남은 것이 대외밖에 더 있었는가?



리호중 한국한시협회 포천지회장

는 말인가?  
결국 그는 여순감옥에서 생을 마쳤다. 그는 평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죽거든 애농의 발길에 사체가 차지 않도록 화장하여 바다에 띄워달라."  
그러나 유해를 고국 땅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위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 그의 시신은 고국으로 돌아왔다.

신채호(申采浩) 1880년(고종 17) ~ 1936년. 본관은 고령(高靈)이며 호는 단재(丹齋)이다. 18세 때 전학부대신 신기선(申箕善)의 배려로 성균관대학에 입학한 후 유학자인 이남규(李南圭)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26세 되던 1905년 성균관 박사과 퇴임으로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의 기자로 활약하며 많은 글을 썼다. 이후 함흥비밀결사단 신민회(新民會)에 참여하고, 안창호 등과 신민회의 방계조직인 청년학우회(靑年學友會)를 발기하였다. 1910년 블리디노보스로 가서 이동휘 등과 광복회(光復會)를 조직하고, 1913년 상해로 가서 동재사(同盟社)에 참여하였다. 1918년경부터 북경의 보타암(普陀庵)에 우거 하면서 국사 연구를 계속하였다. 1919년 북경에서 대한독립청년단을 조직하고 단장이 되었으며 그 해 4월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노선에 반대하여 직책을 사임하고, 독립신문의 주필이 되었다.

발견했다.  
"돈이 떨어진 줄 알았더니 아직도 남아 있었군."  
그러면서 그는 호주머니에 돈을 집어넣곤 했다.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할 때 신채호는 미국에 들어갔다 감대공에 청원만 하고 다니는 이승만을 행정수반으로 추대하는 것에 격렬히 반대하였다.  
"미국에 위임통치를 청원한 이승만은 이완용보다 더 큰 역적이요,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아직 되찾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으려 하질 않소! 그런 데도 우리의 대표로 나설 수 있던 말이오?"  
그는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이때 문을 지키던 젊은이들이 걸음을 내야 하는데 문을 열어 주었다. 신채호가 눈을 부릅뜨고 호통쳤다.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 대외(大義)밖에 더 있는가? 민족적 대의가 용납할 수 없다. 차라리 나라 죽여라!"

신채호가 일본군에 체포되어 여순감옥에 있을 때였다. 친지들이 일가 벌 되는 한 부호를 설득하여 그의 보증 아래 신채호를 가족시키기려고 하였다. 그러나 병상에 누워 있던 신채호는 이를 듣고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이 친일파 아닌가? 친일파의 보증을 받고 감옥에서 나가라"

### 예/술/칼/럼

## 농사는 인간예술의 보루다

말이 세상을 열어 빛이 있으라 했다. 농부는 전등 빛으로 세상을 기쁘지 않는다. 오로지 햇볕으로 가운다. 하늘을 철석같이 믿고 합부로 사람의 기기에 의존하지 않는다. 결코 이 뜻을 찾는 데 급급해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섣불리 글 쓰는 이는 좋은 낱말을 주어야 감격한 마음에 주임신 감명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 말의 줄기가 성하여 어느 세월에도 열매를 맺었다.  
이제는 교실이나 강단에서 또는 자전에서 이미 성립해 버린 남의 사상과 이론까지도 사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다. 탈실한 열매와 인간의 씨를 얻으려면 씨를 받아들이고 건강한 토양을 우선 보듬어야 한다. 알맞은 수확을 받아들이는 탄력 있고 신명나는 흙을 먼저 만드는 일이다. 그렇다. 농부는 먼저 땅심을 돌아 새기를 놓칠 줄 모른다.  
갈대 무성한 울음산 바다 서너 평을 한 쪽으로 그린들, 한 뼘만 짙은들, 몇 마디의 언어로 썩든, 한 컷이 된들, 한 잔이 된들, 어찌 그것만이 예술의 방편이 되겠는가.  
작품은 말한다. 서로 다루거나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도 않는다. 보리밭의 잠부기가 손을 들고 일어 서거나 논밭에 피들이 바람과 마박을 들이대거나 들판의 보리대나 민경 뜰 벗어나고 개를 바짝 쳐 들고 깃발을 세우지 않는다.  
묵묵히 파고낸 햇살로 종아리를 가리며 알뜰히 된다. 어정어정 기웃거리며 개미와 배짱의 살아가는 방식에 간섭하려 들지도 않는다. 제자리에서 제 몫을 다할 뿐이다. 약기는

사람이 건드릴 때 소리를 내지만 작품은 하늘에 순종하여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때로는 스스로 큰다. 농부는 이러한 단순한 생명을 다스려 그 종자를 보존해 가는 문화의 울사다. 농부는 밭밭을 키우 달과 목화꽃이 노래하게 하였으며 이 세상의 사람과 문화와 평화를 지켰다. 온갖 먹거리와 키우 내어 식복 문화를 이루어 내는 문명으로서 지대히 기뻐했다.  
그렇다면 인간문화의 탐으로 우뚝 선 '한가위'는 과연 누구의 작품인가. 그 중심에는 산과 들과 내와 그리고 농부가 있다. 인간의 고함이고 청청히 거기에 있다. 인간의 정감이 넘치는 화해와 용서의 통로가 거기 있고 하늘에 대한 감사와 조상의 끈끈한 뿌리가 그 곳에 있다.  
그러므로 농사는 농부가 자연과 합작하는 위대한 예술작품이다. 리 알리타와 휴머니즘으로 흥분 켜는 결국은 사랑의 태에서 씨앗을 탄생시키는 우주의 결작품이다. 농부는 자연의 소리를 거역하기 이전에 타협하고 착실히 순응한다. 공간의 변명이 앞서 경기와 낫을 들며 햇살 사회의 발돋움 씩는다. 농부는 자연과 흙과 사바를 끌어 밀하기보다는 먼저 듣는다.  
하늘의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침묵으로 화답한다. 때로는 날씨에 예측하는 기상대의 과학보다 체험의 학습으로 습득한 번덕스런 환경을 작품의 성장발육과정에 놓는 것 용에 건다. 밭밭에는 인터넷 정보가 침투하여 자연과도 병렬한 경쟁을 한다. 그리고는 바람과 빛과 구름이 고스란히 녹여있는 노동의 땀

을 노동요(메나리)로 풀이하며 희망한다. 그야말로 위대한 노동의 찬가며 인간의 지고한 행헌이다. 농사는 몸과 정신으로 하는 실천예술이다. 그러하다. 영화가 종합예술이라면 농사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포용하는 복합예술이다. 또한 진화해 가는 문화에 디딤돌을 놓는 것이 다양한 삼짱과 사유의 디가 되 어 영광로가 된다. 농부의 물리에는 느끼게 사는 지혜와 은근과 끈기가 살아 있다. 농사의 여부는 선택이 아니라 천부의 기차다. 곧 농부는 해를 등에 지고 비밭을 다스리고 밭 길을 내며 양지와 음지를 다독거리 삼위일체(하늘, 농부, 땅) 합작하여 선(善)을 이루게 한다.  
현역 일을 해도 가난하다 하여 상업예술과 마모니즘(mammonism)이 빠져서는 안된다. 농사는 결코 드라마가 아니라 농사의 생명의 예술이다. 흙과 바람과 아침으로 사람의 예술을 해야 한다. 농부는 이 땅의 파수꾼이자 인간예술의 보루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통하여 농부를 만나고 농부를 통하여 하늘을 본다. 이것이 곧 예술의 궁극적 유포이다.

(010-3722-5052)

## 작품 '바람 속에 내려질제...'

### 한동엽무용단 제17회 전국무용제 금상

지난 9월 3일부터 12일 까지 'NOW DANCE' 라는 슬로건으로 전라남도 목포시민체육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개최된 제17회 전국무용제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한 포천시 한동엽 무용단은 단체금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고 개인상으로는 안무상(한동엽), 연기상(최태연)을 수상했다.

전국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한동엽무용단의 작품 '바람 속에 내려질제...'는 미당 서정주 시인의 작품을 모티브로 '꽃처럼 가벼이 연의 고귀하고 단아한 지재와 남성의 강인한 춤사위를 접목시켜 그리움의 이미지를 바람과 꽃으로 형상화하여 섬속한 멋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포천시 한동엽무용단은 1999년 창립하여 제10회 광주국악대전 무용부문 최우수상 수상, 경기우수무용대상, 제12회 청소년인성교육대회 대통령상수상 등 다양한 무대에서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한동엽 대표는 "앞으로 우리의 무용을 널리 보급 발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포천출신 예술문화인의 양성을 위해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연구 운영하는 꿈을 가지고 있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싱크로나이즈드(드) 수영(synchronized swimming)과 수중 발레의 효시 스위밍 뮤지컬(Swimming Musical)



에스터 윌리엄스(Esther Williams, 1921~)의 대표작품인 스위밍 뮤지컬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뮤지컬이 아니다. 물론 극중에 노래가 나오기는 하지만 배우들이 직접 부르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장면의 분위기를 전달해 주는 노래이거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고 있다. 거의 모든 영화 속 장면들이 물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뮤지컬로 보기에 무리가 있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영화사적인 면에서 뮤지컬 장르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만일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수중댄스 혹은 수중발레 쇼라고도 할까. 어쨌든 30년대와 1950년대에 걸쳐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스위밍 뮤지컬(Swimming Musical)은 미국 수영선수 출신인 에스터 윌리엄스(Esther Williams)가 할리우드로 오면서 창조된 특별한 영화였다. 최근 올림픽에서 볼 수 있는 싱크로나이즈드(드) 수영(synchronized swimming)과 수중발레는 1940년대 당시에 이미 이 영화를 통해 시작되었는데 물속에서 완벽하게 안무화된 코러스 걸들을 출연시켜 새로운 뮤지컬의 경향을 보여주었다. 1940년대 개봉된 <목욕하는 미인(Bathing Beauty, 1944)>을 시작으로 <백만 달러 인어(Million Dollar Mermaid, 1952)> 등에서 선보인 물속발레 장면들은 촬영기술의 발달과 함께 관객들에게 새로운 뮤지컬의 즐거움을 제공해 주었다. 에스터 윌리엄스는 위의 두 작품 이외에

도 <당신과 함께 섬에서(On an Island With You, 1948)>, <넙넙의 딸(Neptune's Daughter, 1949)>, <이지 투 러브(Easy to Love, 1953)>, 그리고 마지막 MGM 영화인 <쥬피터의 달링(Jupiter's Darling, 1955)> 등으로 박스 오피스의 대히트를 기록했는데 194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MGM 영화사의 보물과도 같은 스타의 한 사람이었다.  
에스터는 처음에 아마추어 수영선수로 출발했다. 재능이 많은 선수로 촉망을 받았는데 아마추어 100미터 자유형 챔피언(National AAU champion)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1939년에 뉴욕에서 열린 세계박람회에서 빌리 로즈(Billy Rose)의 수상 쇼인 아쿠아케이드(Aquacade)에 출연하게 되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받게 된다. 수상 쇼에서 에스터는 세계적인 스타 조니 와이즈플러(Johnny Weismuller, 1904~1984)와 함께 공연했는데 조니 와이즈플러는 1920년대에 활약한 미국의 수영 선수로 5개의 올림픽 금메달과 1개의 동메달을 땀으며 67개의 세계 신기록과 52번의 미국 챔피언을 지낸 전설적인 수영선수였다. 수영계에서 은퇴한 조니는 1932년 MGM 영화사와 계약을 맺은 직후 <타잔, 원숭이 인간(Tarzan the Ape Man)>이라는 영화 속에서 타잔(Tarzan) 역할을 맡게 되었고 영화의 대성공과 함께 일약 세계적인 배우로 명성을 얻게 되면서 영화배우로서의 인생을 걷게 되었다. 조니 와이즈플러처럼

에스터도 수영선수로 출발해 뉴욕 세계박람회 수상 쇼의 대성공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된다. 1940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박람회에 또 한 번 출연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MGM 영화사에서 관심을 보여 결국 스카우트되면서 배우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1944년에 첫 개봉된 <목욕하는 미인(Bathing Beauty)>은 에스터 윌리엄스의 전형적인 영화 스타일을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수영장에서 서로 교차하면서 다이빙하고 물속 발레를 피날레로 장식하는 장면은 매우 유명한 수영장 속 많은 배우들의 주목을 받으며 에스터 물속에 다이빙하고 물 밖으로 떠오를 때 여영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장면은 영화의 상징이 되었다. 특히 1950년대에 만들어진 <백만 달러 인어(Million Dollar Mermaid, 1952)>와 <쥬피터의 달링(Jupiter's Darling, 1955)> 등은 정교하게 무대화된 싱크로나이즈드(드) 수영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다. 외계어 날들 올림픽을 비롯해 세계대회에서 관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싱크로나이즈드(드) 수영은 인기종목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1940년대부터 시작된 에스터 윌리엄스의 뮤지컬 영화들에서는 이미 싱크로나이즈드(드) 장면들이 만들어졌으며 마치 1930년대 버스비 버클리(Busby Berkeley)가 만들었던 기하학적 이미지의 연쇄테이션을 연상케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장면들은



윤우영 (대전대 교수, 연출가)

'견과류(堅果類)'는 딱딱한 과일을 말한다. 견과는 '비타민 E'가 풍부하고 거칠어지기 쉬운 겨울철 피부를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여 매우 이로운 식품이다. 밤, 잣, 호두, 가래, 아몬드 등은 견과는 '올레인산', '리놀레산' 등,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몸의 해로운 중성 지방산과 저밀도 콜레스테롤(LDL) 수치를 낮추고, 심장질환을 예방하고 혈관을 튼튼히 하는 고밀도 콜레스테롤(HDL)은 유지시켜서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견과류에 들어 있는 불포화지방산은 뇌신경 세포를 성장시켜서 아이들의 두뇌발달과 뇌세포가 쇠퇴

하는 노인들의 치매 예방에 좋다. 또한 비타민 E는 기억력을 좋게 하여 집중력이 필요한 수험생들에게도 효과적이다. '견과류'는 '녹는 화산족' 피부미용제라고 별명이 붙어 있을 만치 거칠고 건조한 피부에 윤기가 흐르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혈액의 흐름을 도와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하여 피부 노화 방지와 건강한 피부를 유지케 한다. 밤'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A·B·C 등 모든 영양이 골고루 들어 있다. 특히, 비타민E의 함량이 높을수록 미용, 피로회복, 감기에 방 효과가 있고 밤의 당분은 위장 기능을 강화하고 신장을 보호

해 준다. 옛날 고향 포천의 노부부를 모신 효자들은 매일 노부부 간식으로 구운 알밤을 노부부 잡자리 옆에 매일 넣어 드시게 하였다.  
피자가 어려울 때 고향 기피울의 냇가에서 뚝배를 타고 종횡해(큰데)들과 겨울 놀이를 하는 곳까지 큰데 할머니께서 군밤을 까서 배 수건에 싸서 식지 말라고 허리춤에 넣어 가지고 오셔서 밤까지 큰데 할머니께서 군밤을 까서 배 수건에 싸서 식지 말라고 허리춤에 넣어 가지고 오셔서 밤까지 큰데 할머니께서 군밤을 까서 배 수건에 싸서 식지 말라고 옛 생각이 잠기게 한다. 우리 큰

## 초대 漢詩 糾彈日本獨島侵略蠻行(규탄일본독도침략만행)



歎息倭響共戴天(탄식왜수공대천) 侵略掠奪四旬年(침략약탈사순년) 애농원수와 같은 하늘 아래 있음을 탄식하네, 우리나라를 침략 사십년간 억압하였으니.  
萬氓同志成民主(만맹동지성민주) 先烈勳功返國權(선열훈공반국권) 민민의 투지로 민주화를 이루웠고, 선열들의 훈공으로 국권을 회복하였다.  
怨敵安言蠻態現(원적안언蠻態現) 大韓主唱正當堂(대한주창정당성) 원적이의 말은 오랑캐의 욕사이요, 우리의 주장은 정당한 것이다.  
糾彈亂敵加刑逐(규탄난적가형축) 意氣堂堂後世傳(의기당당후세전) 난적을 규탄하고 가형 축출해서, 의기가 당당함을 후세에 전하세.

松園 李曉種 포천한시사 대표

안익수 시인 제3의문학발행인